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고용노동부
	배포일시	2018. 5. 31.(목) / 총3매(본문2, 참고1)	
국토교통부	대중교통과	• 과장 김기대, 사무관 문기성, 주무관 안승현 • ☎ (044)201-3823, 3827, 3832	
	노선버스 근로시간단축TF	• 팀장 강욱, 사무관 이경수 • ☎ (044)201-4978, 4979	
고용노동부	근로기준 혁신추진팀	• 팀장 황효정, 사무관 곽철홍 • ☎ (044)202-7543, 7546	
보 도 일 시		2018년 6월 1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 31.(목) 16:00 이후 보도 가능	

노 · 사 · 정, “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과 시민불편 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”

- 현 운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「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」 마련 예정

□ **정부**(**국토교통부**(장관 김현미), **고용노동부**(장관 김영주))와 **자동차노동조합연맹**(류근중 위원장), **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**(김기성 회장)는 **‘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’에 합의**하고, 5.31일(목) **서명식을 개최**하였다.

○ 금번 **노사정 선언문**은 금년 **7월 근로기준법의 개정·시행**에 따라,

-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운행감축 등 **노선버스의 현장 혼란**과 버스 **이용자의 큰 불편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고,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**되도록 **노사정 모두**가 **적극적으로 협력**하기로 한 데에 의의가 있다.

○ 노사정은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이후 지속적으로 **인력 충원**과 **임금감소 문제** 등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, 지난 **5월 17일 정부합동 ‘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대책’**의 발표 이후에는 **노사정 집중교섭***을 진행해 왔다.

* 자동차노동조합연맹위원장,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, 고용부·국토부(실장) 참여

- 그 결과 노사정은 **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준수**하고 **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**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**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**에 이르게 되었다.

□ 이번 선언문에서 **노사정이 합의한 주요 내용**은 다음과 같다.

○ 노사정은 **노선버스의 운행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**되도록 201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**1일 2교대제 미시행 지역 및 사업장**에 대해 **근로형태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**하는데 **협력**한다.

○ 노사정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**노동자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**과 **운전자의 신규 채용**을 위해 **적극 노력**하고, 정부는 이를 **행정·재정적으로 지원**한다.

○ 노사정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상호 협의하여 **'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'**을 **2018년 12월까지 마련**하고, 필요한 준비를 거쳐 2019년 7월 1일에 시행한다.

□ 정부는 **합의 사항의 차질없는 이행**을 위해 노사정 협력을 바탕으로 **지역별 노사 간담회** 등 현장 소통을 지속 추진하고, **컨설팅**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○ **버스 운전자의 원활한 공급**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버스 운전자 양성사업을 적극 지원하고, 군 운전경력자 활용 등 버스 운전자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를 계기로 노사와의 협력에 기반하여 **노선버스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**하고, **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**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다.

첨부.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문기성 사무관(044-201-3832), 이경수 사무관(044-201-4979), 고용노동부
곽철홍 사무관(044-202-754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

'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'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선버스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및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노사정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며,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노력한다.

1. 노사정은 노선버스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018년 7월 1일, 국민들의 이동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.

2. 노사정은 노선버스 운행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도록 2019년 6월 30일까지 근로기준 및 조건들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되어 노선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도록 협력한다.

3. 노사정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의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과 운전자 신규채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.

4. 정부는 노사 간 근로계약을 존중하는 등 제도 연착륙을 위한 노력을 행정·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.

5. 노사정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상호 협의하여 대중교통의 정시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'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'을 2018년 12월말까지 마련하고, 필요한 준비를 거쳐 2019년 7월 1일에 시행한다.

2018. 05. 31

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**위원장**	**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** **회 장**
_____	_____
고 용 노 동 부 **장 관**	**국 토 교 통 부** **장 관**
_____	_____